

러시아군사교관 단장 뿌자따와 조선군대

金 榮 洙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역사학박사)

1. 머 리 말
2. 조선과 극동에 대한 인식과 구상
3. 조선군대의 양성계획과 군사교관의 역할
4. 조선에서의 활동 및 조선군부와의 관계
5. 맺 음 말

1. 머 리 말

러시아특명전권공사 민영환은 1896년 5월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참석하였다. 1896년 6월 러시아 황제를 알현한 민영환은 당대의 최고 관료인 재무대신 비테(С.Ю. Витте), 외무대신 라바노프-라스뎃스끼(А. Б. Лобанов-Ростовский) 등을 만나면서 조선과 러시아의 협력을 추진하였다.1) 양국의 상호협력을 추진한 민영환이 귀국할 때 조선주재 러시아군사

교관 단장 뿌짜따(Д.В. Путьта)도 1896년 10월 연흥룡강 군사관구 소속의尉官과 下士官 등 총 13명을 인솔하여 서울에 도착하였다.²⁾

조선에 파견된 대령 뿌짜따와 관련하여 1896년 10월 독립신문에서는 그가 “청국주재 러시아 군사사무관으로서 북경에 있는지 수년, 동양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기량에 의하여 조선에 이익 되는 바가 있으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 바이다”라고 밝혔다.³⁾ 또한 1897년 6월 뿌짜따가 “조선에 와서 여러 해를 기별 하였는데 지금은 시위대가 거진 다 정돈이 되어 대개 직무를 잘하게 되었다”고 그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⁴⁾

하지만 조선주재 일본공사 가토우(加藤增雄)는 1897년 5월 뿌짜따가 “조선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만강(滿腔)의 불평을 호소하고, 또한 말하되 우리가 출발하기에 앞서 조선 천지가 전복될 만한 대폭동(大爆動)을 일으키지 않고는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고종에게 알렸다.⁵⁾ 이렇듯 일본 공사는 뿌짜따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했을 뿐만 아니라 고종과 뿌짜따의 사이를 이간질까지 시키려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에서 뿌짜따의 활동과 관련해서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평가와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평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뿌짜따 대령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아관파

1) 민영환, 國史編纂委員會編, 『海天秋帆』, 『閔忠正公遺稿』(서울, 탐구당, 1958), 91쪽; 윤치호, 國史編纂委員會編, 『尹致昊日記(4)』(서울, 탐구당, 1975), 203, 205, 214-215쪽; Архив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대외정책문서보관소. 이하: АВПРИ) Ф.150. Оп.493.Д.72.Л.26 с об.

2) The National Archives. FM 134. Roll 13. No 240. PP. 1-2; 제정러시아재무부편, 崔璇·金炳璘譯, 『國譯 韓國誌』(경기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678-679쪽. 러시아 1차 군사교관은 장교 4명, 하사관 10명으로 구성되어 1896년 10월 20일 조선에 왔고, 러시아의 2차 군사교관은 장교 3명, 하사관 10명으로 구성되어 1897년 7월 29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3) 『THE INDEPENDENT』, 1896.10.24, 『LOCAL ITEMS』.

4) 『독립신문』, 1897.6.10, 『잡보』.

5) 國史編纂委員會編, 『駐韓日本公使館記錄(11)』(서울, 時事文化社, 1995), 516쪽.

천 이후 고종은 조선에서 일본의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협력 파트너로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러한 의도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고종은 자신의 측근 인물인 민영환을 1896년 4월 니콜라이 2세의 황제대관식에 참석하도록 출발시켰다. 즉 민영환은 러시아의 군사와 경제 분야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파견되었다.⁶⁾ 하지만 러시아정부는 1896년 6월 일본과의 외교적인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신속한 답변을 회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영환이 러시아정부에게 끈질기게 요청한 것은 고종의 신변보장과 러시아군사교관의 조선파견이었다.⁷⁾ 이를 위해서 황제대관식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환은 당시 러시아수도인 뻬쩨르부르크 등에 두 달 이상을 더 머물렀다.⁸⁾ 이러한 민영환의 노력 때문에 1896년 7월 말 러시아군부도 군사교관의 조선파견을 결정하였고, 민영환은 1896년 8월 군사교관 단장으로 내정된 뿌짜파를 만날 수 있었다.⁹⁾ 이후 뿌짜파는 조선에서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조선과 러시아의 긴밀한 우호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이다.

당시의 조선과 러시아의 관계를 포함한 동북아정세에서 뿌짜파가 미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의 선행연구는 조선과 러시아의 군사관계 또는 조선과 러시아의 관계사에서 그를 간단히 소개하는 수준이다. 또한 러시아 군사교관 단장 뿌짜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성과는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이다.¹⁰⁾ 그 이유는 미소 냉전의 해소로 러시아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6) 윤치호, 國史編纂委員會編, 『尹致昊日記(4)』(서울, 탐구당, 1975), 160, 167쪽; 민영환, 國史編纂委員會編, 『海天秋帆』, 『閔忠正公遺稿』(서울, 탐구당, 1958), 69-70쪽; 國史編纂委員會編, 『駐韓日本公使館記錄(11)』(서울, 時事文化社, 1995), 197쪽; AVPRI, Ф.150. Оп.493.Д.69.Л15.

7) AVPRI, Ф.150. Оп.493.Д.72.Л31 с об; AVPRI, Ф.150. Оп.493.Д.215.Л249 с об.

8) 민영환은 1896년 8월 19일 뻬쩨르부르크를 떠날 수 있었다(민영환, 國史編纂委員會編, 『海天秋帆』, 『閔忠正公遺稿』[서울, 탐구당, 1958], 115쪽).

9)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군사문서보관소. 이하: РГВИА), Ф.846. Оп.2. Д.96. Л.101 с об; 민영환, 國史編纂委員會編, 『海天秋帆』, 『閔忠正公遺稿』(서울, 탐구당, 1958), 114쪽.

상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소개나 연구가 미진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러시아 문서보관소에 소장된 뿌짜따의 관련 문서를 중심으로 그의 조선 및 극동에 대한 인식과 구상, 그의 파견경위와 조선군대 양성 계획, 그리고 그의 조선에서의 활동 및 조선군부와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뿌짜따에 대한 보다 치밀한 연구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필자는 그가 러시아 군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고, 러시아 군부에 미친 영향력을 추적할 것이다. 그를 통해서 조선과 만주 지역 진출을 위한 러시아 군부의 정책 수립 과정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필자는 뿌짜따의 조선군대 양성 계획이 그의 독자적인 구상

- 10) 조선과 러시아의 관계사 및 조선 군사관계를 서술하면서 조선에 파견된 러시아군사교관을 주목한 기존의 국내외 연구 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Описание Кореи[한국지]. Ч.1. СПб. 1900; Нихамин В.И.[니하민] Русско-япо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и Корея 1894-1898 гг [러일관계와 조선]. М. 1948; Пак Б.Д.[박보리스]. Россия и Корея[러시아와 조선]. М. 1979; Lensen G.L. *Balance of Intrigue. International Rivalry in Korea and Manchuria, 1884-1899*. Volume 2. Florida. 1982; Пак Чон Хё[박종호]. Россия и Корея [러시아와 한국]. 1895-1898. М. 1993; 李玟源, 「俄館播遷 前後의 韓露關係」, 精神文化研究院博士論文, 1994; 이민원, 「19세기말 러시아 군사교관단의 활동과 역할」, 『군사』, 44호, 2001;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서울, 혜안, 2000); 현광호, 『대한제국의 대외정책』(서울, 성신원, 2002); 심현용, 「자료발굴: '주한 러시아 군사교관단' 활동보고서 해제」, 『군사』, 48호, 2003; Пак Б.Б.[박벨라] Российская дипломатия и Корея[제정러시아의 외교와 조선]. Книга вторая. 1888-1897. М. 2004; 심현용, 『한말 군 근대화 연구』(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5); Ким Ен-Су.[김영수] Русские военные инструкторы в Корею и корейская армия[조선에 파견된 러시아군사교관과 조선군대]. Русский сборник [러시아선집]. Т.2. М. 2006). 위의 연구 성과 중 이민원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러시아 군사교관의 활동을 조망하려고 시도하였고, 심현용은 러시아군사교관의 활동에 관한 러시아자료를 국내에 최초로 소개하였다. 특히 심현용은 갑오개혁 시기 일본의 혼란대 편성계획에 대해서 러시아가 아관파천 이후 군사교관단을 파견하면서 양성하고자 한 조선군 증강계획과 유사하다고 밝혔다(심현용, 『한말 군 근대화 연구』[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5], 189쪽).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논쟁점이 형성되었다. 1) 러시아군사교관의 조선파견을 주도한 정치세력에 대한 규명, 2) 1896년 조러 협상에서 민영환의 활동과 그에 대한 평가, 3) 군대양성을 위한 조선정부의 프로그램 존재 여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인지, 그리고 러시아군부가 일방적으로 러시아군사교관의 파견을 추진했는가를 유의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현재 자주적 근대국가 또는 무능한 반동정권 등으로 조선정부를 평가하는 시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¹¹⁾ 조선군대 양성 및 군사교관 초빙을 둘러싸고 형성된 뿌짜따를 비롯한 러시아군부와 고종을 중심으로 한 조선군부와의 관계를 주목함으로써, 조선과 러시아와의 관계 및 조선정부에 대한 평가 등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조선과 극동에 대한 인식과 구상

(1) 극동에 대한 인식과 구상

뿌짜따는 1855년 러시아 스몰렌스크(Смоленск)주에 있는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알렉산드르 사관학교와 니콜라이 군사아카데미를 졸업한 뒤 1874년 육군 소위에 임관되었다. 그 후 뿌짜따는 1887년부터 1891년까지 청국 주재 군사요원(武官)으로 활약하였다. 그는 러시아군사요원으로 활동하면서 1887~1888년 사이에 북경 주변과 만주 지역에 대한 정찰 업무를 수행하였다.¹²⁾ 그는 당시 황태자(향후 황제가 되는 니콜라이 2세)가 청국을

11) 1897년 10월 조선정부는 국호를 '대한'으로 바꾸고 고종은 황제로 즉위하였다. 그래서 1897년 10월 이후는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부른다. 필자는 뿌짜따가 1896-1897년에 조선에 파견되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조선이라고 기술하였다. 대한제국에 대한 평가는 다음을 참조(전우용, 『대한제국' 평가 논쟁』, 『논쟁으로 본 한국사회 100년』[서울, 역사비평사, 2000]; 김재호·이태진 등, 『고종황제 역사 청문회』(서울, 푸른역사, 2005); 왕현중, 『광무개혁 논쟁』, 『역사비평』, 2005, 73호).

12) РГВИА. Ф.409.Оп.1.Д.241-171.Л.44 с 06. 박종효는 뿌짜따에 대한 간단한 약력을 국내에 최초로 소개하였다(박종효編, 『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한국관계 문서 요약집』[서울, 한국국제교류재단, 2002], 583쪽).

방문할 때 香港, 廣東, 南京, 漢口 등을 함께 수행하였다. 황태자를 수행한 후 그는 1891년 신장(Хинган, 新疆) 지역에 대한 탐험을 주도하였다. 뿌짜따는 1896년 5~6월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참석하는 일본대표 야마가타(山縣有朋) 등을 수행하였다.¹³⁾ 그의 경력을 살펴보면 그가 러시아의 극동지역 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극동에 대한 뿌짜따의 인식은 1895년에 작성된 ‘극동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보존을 위한 필연적인 조치’라는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청일전쟁 이후 극동지역의 정세 변화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¹⁴⁾ 먼저 청국에 대해서 뿌짜따는 “청국이 최근 30년 동안 자국의 군사력을 근대화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만약 청국이 군사개혁을 성공한다면 주변 인접국을 위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비해서 뿌짜따는 “일본이 국내개혁을 성공했기 때문에 국내적 안정을 달성했다”고 지적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는 일본의 현재 상황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군사와 경제 개혁에 성공했기 때문에 일본이 극동에서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였고, 청일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하지만 청일 전쟁의 승리가 일본의 민족적 야심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다.” 특히 그는 “일본에서는 보다 강력한 적대적인 국가와의 전쟁을 통해서 군사적 명성을 얻으려는 정서가 팽배하다”고 파악하였다.

위의 보고서에서 조선에 대한 뿌짜따의 인식도 보이고 있다. 그는 “조선이 청일전쟁 이전까지는 지정학적으로 러시아 연해주지역의 국경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수행했지만 청일전쟁 이후 조선의 독립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최근의 조선 상황을 살펴보면 “조선이 국내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미국, 유럽열강, 특히 일본의 정치적

13) 이후 뿌짜따는 육군참모본부 아시아과 과장(1898. 1), 육군 소장(1898. 12), 흑룡강주 군사총독(1901. 7), 육군 중장(1905. 4) 등을 역임하고 1915년 2월에 사망하였다(РГВИА, Ф.409.0п.1.Д.241-171.ЛЛ15006-5106).

14) 뿌짜따는 1895년에 상반기 위의 제목으로 군부에 제출하였다(РГВИА, Ф.846.0п.4.Д.34.Л.23).

각축장이 되었다”고 파악하였다.

서구열강의 극동지역 활동에 대해서 뿌짜파는 자신의 부정적인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는 “서구열강의 대표들이 극동지역 상업이권 등을 위해서 파견되었다. 이들은 러시아의 극동진출에 대해서 강력한 방해세력이다. 서구열강의 대표들이 자국의 민족적인 정당성을 유포시키고, 극동국가에서 자국의 상업적 이권을 획득하려고 노력하고, 극동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¹⁵⁾

이상과 같이 당시 극동지역의 상황을 판단한 뿌짜파는 극동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방안에 대해서 “러시아가 군사부분만 집중적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때문에 “러시아가 극동지역의 국가들에게 정치 및 경제 부분까지 의도적으로 접촉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 그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1) 극동지역 국가와 상업교역을 발전시키고, 2) 조선과 청국의 세관 업무에 러시아인을 참여시키고, 3) 극동지역에서 러시아 선교사 활동을 장려하고, 4) 민족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극동지역에서 신문을 발간하고, 5) 극동지역 국가의 군사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으로 군사요원을 포함한 러시아인의 파견을 추진해야 한다.”¹⁶⁾

뿌짜파는 러시아군부가 극동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군사적 부분에 대해서 보다 세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러시아군부가 조선, 일본, 청국의 군대발전 상황에 대해서 치밀한 조사를 실행해야 하고, 극동지역의 혼란을 대비해서 러시아군대의 근대화를 위한 모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극동지역의 전쟁을 예상해서 러시아의 군사작전 계획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5) РГВИА. Ф.846.Оп.4.Д.34.Л.23.

16) РГВИА. Ф.846.Оп.4.Д.34.Л.23об.

그가 주장한 군사적 대응전략의 단계 중 극동지역에 러시아의 군사요원 파견 및 첩보조직 건설 등이 시급한 문제였다. 이를 위해 그는 러시아군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 현재 1명의 러시아 군사요원이 청국과 일본의 군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바꾸어서 청국과 일본에 군사요원을 각각 파견해야 한다.¹⁷⁾ 2) 만주를 포함해서 극동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러시아 영사관에 군사요원을 독자적으로 파견해야 한다. 3) 조선, 일본, 청국을 조사하기 위해서 첩보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극동지역에 있는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매년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4) 극동지역에 군부소속 중앙장교 중 5~10명을 2년 미만의 기간으로 해마다 파견해야 한다.¹⁸⁾ 극동지역에 파견될 러시아군사요원 및 장교에게 해당 국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극동의 언어 등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장교에게 뻬쩨르부르크대학 동방학부에서 2년간의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뿌짜파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제출하는 러시아군사요원의 보고서를 통해서 러시아가 극동지역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그는 이러한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서 “러시아군부가 극동지역 문제에 대한 정책 수립과 판단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그는 “만약 극동지역 국가가 외국인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면 러시아군사요원의 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혀 군사요원 파견의 한계를 지적하였다.¹⁹⁾

따라서 뿌짜파는 해외에 파견되는 러시아군사교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군사교관이 해외에 파견된 군사요원 보다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즉 “군사요원은 해당 국가의 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피상적인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치지만, 군사

17) РГВИА. Ф.846.Оп.4.Д.34.Л.236.

18) РГВИА. Ф.846.Оп.4.Д.34.Л.236 об.

19) РГВИА. Ф.846.Оп.4.Д.34.Л.23в.

교관은 담당 국가의 군대 상황과 사무를 직접 관찰하기 때문에 내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²⁰⁾

이렇듯 군사교관의 중요성을 인식한 뿌짜파는 만약 조선군대가 독일, 영국, 일본 등에 영향을 받는다면 러시아에게 매우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러시아정부가 러시아군사교관의 조선 파견을 조선정부에게 신속하게 제안할 것을 주장하였다.²¹⁾ 그러면서 뿌짜파는 러시아군사교관을 조선에 파견하기 위해서는 조선과 청국에서 각각 보여주었던 일본과 독일의 군사교관 활동을 참고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그는 청국에서 독일 군사교관의 활동이 실패한 이유를 상세히 서술하였다. 그의 판단에 의하면 “청국에 파견된 독일 군사교관은 현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고, 독일방식을 성급하게 추진하였고, 군사교관 활동에 대한 치밀한 계획서를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²²⁾

결국 뿌짜파는 “청일전쟁 이후 러시아가 극동 지역, 특히 조선에 대한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연해주지역의 국경문제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극동지역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러시아군부에게 요청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극동지역의 새로운 질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극동지역에서 군사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러시아가 서구열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선, 일본, 청국에 대한 각각의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²³⁾ 이러한 그의 극동에 대한 인식은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투영된다.

20) РГВИА. Ф.448.Оп.1.Д.9.Л.194.

21) 뿌짜파는 서울주재 러시아공사관의 소속하에 러시아군사교관이 조선에 파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조선이 적절한 규모의 정규군을 건설해야 하고, 정규군의 건설을 위해서는 외국 장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РГВИА. Ф.846.Оп.4.Д.34.Л.23B).

22) РГВИА. Ф.448.Оп.1.Д.9.Л.19406-195.

23) РГВИА. Ф.846.Оп.4.Д.34.Л.23.

(2) 조선에 대한 인식과 구상

조선에 대한 뿌짜따의 인식과 구상은 1897년에 작성된 ‘조선의 국내적 정치상황 및 조선에서 러시아의 대응전략에 관한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조선의 지정학적 중요성 및 일본의 조선 진출 등을 다음과 같이 인식하였다. “조선이 러시아의 극동지역 진출을 위한 항해로에 위치하였고, 대마도를 소유한 일본의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조선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파악하였다.²⁴⁾ 청일전쟁 이전까지 청국과 일본은 조선을 둘러싸고 복잡한 이해관계로 대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청국과 일본의 대립을 완충시킬 수 있는 중립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조선이 시베리아 국경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러시아의 선린적인 이웃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파악하였다.

하지만 뿌짜따는 “청일전쟁 이후부터 삼국간섭 이전까지 조선이 중립지대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인식하였다. 그 배경에는 청일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일본이 극동지역에서 자국 중심의 질서를 강화하고 조선을 일본에 편입시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청일전쟁 직후 1895년에 갑오개혁을 지원한 일본이 조선에서 성급하게 외국 제도를 도입시키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각종개혁을 조선에서 순조롭게 진행시키지 못했다고 파악하였다.²⁵⁾ 뿌짜따는 “삼국간섭과 아관파천을 거치면서 조선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약화되자 최근에는 일본이 보다 세련된 방법으로 조선에 진출하고

24) РГВИА. Ф.448.Оп.1.П.9.П.353. 뿌짜따는 1897년 11월 군부대신 반놉스끼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5) 선행연구는 갑오개혁기에 시도된 근대적 국가체제 개혁은 군주권의 제한에 입각하면서 改革官僚의 權力獨占을 강화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갑오개혁의 내각관제가 1889년 12월 제정된 일본 명치헌법상의 규정을 거의 번역한 것이라고 밝혔다(왕현중, 「甲午改革期 官制改革과 官僚制度의 變化」, 『國史館論叢』, 68輯, 1995, 285쪽; 왕현중, 「갑오개혁 연구-개혁관료의 근대국가론과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9, 189쪽).

있다”고 밝혔다. 즉 일본정부가 문화적인 형태로 조선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하면서 조선에 일본의 산업과 상업 회사의 진출을 장려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노력으로 조선 양반계층 사이에서 일본을 지지하는 정당이 설립되었고, 조선의 왕자까지도 일본을 방문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결국 “일본은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화로 만들기 위해서 조선에서 각종 정치적 음모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파악하였다.²⁶⁾

뿌짜따는 조선정부의 국내 정치상황을 “황실와 양반 그룹의 대립구도”로 파악하였다. 그는 “조선의 후계구도가 러시아의 이해관계와 가장 밀접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목하였다. 고종이 사망한다면 섭정 없이 바로 대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인물이 황태자 李拓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황태자는 자식이 없는 상황이고 병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뿌짜따는 그의 왕위 승계를 비관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뿌짜따는 귀인 장씨의 소생인 義和君 李堉과 고종의 형인 이재면의 아들 李埈鎔을 주목하였다. 그는 “의화군 이강에 대해서는 일본이 적극 지지하는 인물이고, 이준용에 대해서는 대원군의 정치 세력이 적극 후원하는 인물”이라고 파악하였다. 현재 고종은 왕위 승계가 가능한 두 인물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강과 이준용을 일본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고종이 이강을 미국 워싱턴에, 이준용을 영국 런던에 교육을 목적으로 몇 년간 파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아관파천 이후 조선에서 일본에 대한 호감이 약화되었지만 최근에는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도 생겼다고 뿌짜따는 파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뿌짜따는 “이강과 이준용을 러시아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고종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구체적으로 이강과 이준용을 러시아 기병학교 중 특권층만 입학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야 한다고 러시아군부에게 제안하였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러시아가 조선에서 향후 있을 왕권의 교체에 대비하여 보다 안정적인 조선의 관계를 유지

26) АВПРИ. Ф.150.Оп.493.Д.8.Л.327об; РГВИА. Ф.448.Оп.1.Д.9.Л.353об.

할 수 있다”고 뿌짜따는 주장하였다.²⁷⁾

조선에서의 철도 문제 및 노어학교에 대해서 뿌짜따는 다음과 같이 인식하였다. 재정적으로 취약한 조선정부가 철도 건설을 실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러시아재무부가 조러은행을 통해서 조선에 자금을 지원하고, 공병대에 소속한 러시아군사교관이 기술적으로 철도건설을 지원해야 한다”고 뿌짜따는 군부대신 반놉스끼에게 제안하였다.²⁸⁾ 뿌짜따는 1896년에 설치된 노어학교에 대해서 “조선의 양반층이 아닌 중산층만 입학하였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조선인이 정부의 대신까지 임명될 수 있는 실정이지만 조선에서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조선인이 단지 통역밖에 없다고 파악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조선의 양반출신을 러시아의 수준 높은 군사학교 및 특수학교로 입학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⁹⁾

뿌짜따는 기본적으로 “조선에서 일본과 러시아의 군사적 균형이 오히려 러시아에 불리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뿌짜따는 조선에서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러시아와 일본의 군사적 대립에 관한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왜냐하면 “만약 조선의 일부 영토가 일본에게 넘어간다면 러시아가 조선을 진출할 수 있는 희망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극동정책도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파악했기 때문이었다.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러시아가 동해에 인접한 ‘원산’을 장악해야 한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즉 “만약 러시아와 일본의 군사적 대립이 불가피하다면 조선에서 일본을 군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선 항구를 점령

27) РГВИА. Ф.448.Оп.1.Д.9.ЛЛ.355о6-356; АВПРИ. Ф.150.Оп.493.Д.8.Л.330 с о6. 실제 의화군 이강은 1897년 5월 말 유학을 위해서 일본에서 미국으로 출발하였고, 이준용은 1897년 8월 말 요코하마(橫濱)에서 영국으로 출발하였다(國史編纂委員會編, 『駐韓日本公使館記錄(12)』[서울, 時事文化社, 1995], 71-72, 253쪽).

28) АВПРИ. Ф.150.Оп.493.Д.8.Л.329 с о6; РГВИА. Ф.448.Оп.1.Д.9.Л.356 с о6.

29) АВПРИ. Ф.150.Оп.493.Д.8.Л.331 с о6. 고종과 조선 관료가 러시아정부에게 양반자제의 입학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러시아정부가 조선정부에게 답변하지 않았다고 뿌짜따는 밝혔다(РГВИА. Ф.448.Оп.1.Д.9.Л.357 с о6).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⁰⁾ 그는 “러시아 주력군대가 원산까지 진출하기 위해서는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반면에 청일전쟁의 경험을 토대로 한번에 2만 명 이상의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일본군대가 시모노세키(下關)와 나가사키(長崎) 항구에서 출발하면 이들 만에 원산에 도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조선에서 일본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 러시아가 해군력을 필수적으로 강화시켜야 하고, 2) 러시아가 주력부대를 연해주가 아닌 만주지역을 거쳐 조선에 신속히 파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³¹⁾

조선에서 일본의 정치와 군사적 영향력을 막기 위해서 뿌짜따는 러시아가 여러 방안을 수립할 것을 제기하였다. 여러 방안 중 그는 러시아의 조선병합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만약 러시아가 조선을 완전히 병합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지출해야 한다. 이러한 예산 지출을 러시아가 환수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뿌짜따는 “조선이 독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간접적인 지원을 펼친다면 극동에서 평화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³²⁾ 이러한 판단에는 “조선의 자립성이 러시아 국경지역의 안전을 유지해 줄 수 있고, 조선이 일본의 만주진출을 막을 수 있는 장벽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조선에 대한 그의 인식이 작용하였다. 결국 그는 조선이 중립지역으로 남아있어야 러시아에 더욱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그의 주장을 러시아정부 내에서 관철시키려고 노력하였다.³³⁾

30) РГВИА, Ф.448.Оп.1.Д.9.Л.354; АВПРИ, Ф.150.Оп.493.Д.8.Л.328.

31) АВПРИ, Ф.150.Оп.493.Д.8.Л.328 с 66; РГВИА, Ф.448.Оп.1.Д.9.Л.35406.

32) РГВИА, Ф.448.Оп.1.Д.9.Л.35406. 뿌짜따는 현재 조선문제에 관해서 러시아가 불리한 상황을 타파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을 분할할 시기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만약 극단적인 상황에서 조선을 분할해야 한다면 러시아가 쓰시마해협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전에는 일본과 어떠한 합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РГВИА, Ф.448.Оп.1.Д.9.Л.360).

33) РГВИА, Ф.448.Оп.1.Д.9.Л.355. 뿌짜따는 조선과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필요했던 적절한 시점에서 러시아가 군사교관을 파견하여 조선의 내부질서 안정을 위해서 기여했다고 생각

3. 조선군대의 양성계획과 군사교관의 역할

뿌짜파는 1896년 7월 조선주재 군사교관 단장에 임명되기 이전부터 이미 러시아군사교관의 조선파견에 대한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 군부에 보고하였다. 무엇보다도 “러시아군사교관이 고종의 궁궐수비대의 양성 및 조선과 러시아 사이의 전신선 설치를 위해서 활약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서울과 연해주를 연결할 수 있는 전신선을 신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의 러시아군사교관 조선파견에 대한 계획서 초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현재 서울에 위치한 러시아 해군 상륙부대를 150~200명의 연혹룽강 군사관구 소속 육군 정예부대로 교체해야 한다. 대규모의 러시아군사교관이 친위대를 양성하면 조선은 서울에서 일본수비대를 철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본수비대가 서울에서 철수하면 소수의 러시아군사교관이 남아 조선군대의 양성을 지속한다.³⁴⁾

2) 서울(또는 원산)과 노보끼엥스크를 연결하는 전신선을 설치한다. 이를 위해서 연혹룽강 군사관구에 소속된 예비군대가 전신망의 수비를 위해서 전신수비대의 소대로 파견된다.

3) 친위대 양성, 전신선 건설 및 전신선의 수비 등을 위해서 러시아가 파견할 인원은 베베르-고무라 협정에 의거하여 총 400명을 넘지 않는다. 일본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할 때까지는 러시아가 조선에 러시아군대를 유지할 수 있다. 결국 뿌짜파는 병사 340명, 하사 20명, 상사 3명, 의사 1명을 포함한 위관 11명, 참모본부 소속 장교 2명 등의 러시아군사교관을 조선에

하였다. 이러한 군사교관의 활동이 조선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파악하였다(РГВИА. Ф.448.Оп.1.Д.9.Л.355).

34) РГВИА. Ф.846.Оп.2.Д.96.Л.102.

과견해야 한다.”³⁵⁾

위의 계획서 초안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점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 러시아군사교관이 단순하게 고종의 궁궐 수비를 위한 병력만을 양성하려는 것은 아니었다.³⁶⁾ 뿌짜따는 친위대양성을 통해서 고종의 신변안전 뿐만 아니라 일본수비대의 철수를 목표로 하였다. 그는 러시아군사교관을 통해서 친위대의 양성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조선군대의 양성까지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뿌짜따는 조선에서 러시아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신선 보호를 구실로 러시아군대의 파견을 계획하였다. 즉 전신선의 보호와 유지를 위해서 조선에 배치되는 러시아 군대는 일본에 대항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정보망을 구축할 수 있고, 유사시 조선에 신속히 진출할 수 있는 거점을 제공할 수 있다.³⁷⁾

35) РГВИА. Ф.846.Оп.2.Д.96.Лл110206-103. 뿌짜따는 1897년 서울과 러시아국경을 연결하는 전신선이 조선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1898년 봄에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선정부의 재정적 취약성 때문에 러시아의 기술로 전신선을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РГВИА. Ф.448.Оп.1.Д.9.Лл356 с 06).

36) 기존 연구는 러시아군사교관이 고종환궁을 위한 대궐 수비병 양성 또는 왕궁친위대의 창설 때문에 서울에 도착했다고 밝혔다(李玟源, 『高宗의 還宮에 관한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1)』, 1994, 20-21쪽; 최문형, 『민비시해 이후의 열강과 한국』, 『명성황후 살해사건』, 1992, 223쪽). 그리고 기존 연구는 뿌짜따가 조선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한지 2달 정도가 지나서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 조선군 증강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육군참모본부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권희영, 『한국과 러시아: 관계와 변화』[서울, 국학자료원, 1999], 319쪽; 심헌용,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관계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227쪽).

37) 러시아와 조선을 연결하는 전신선 건설이 중요하다고 파악한 뿌짜따는 1898년 봄에 전신선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РГВИА. Ф.400.Оп.1.Д.102.Лл2). 그는 재무대신 비테(С.Ю. Витте)에게 서울과 노보기예프스키를 연결하는 전신선을 신속히 건설해야 하고, 러시아의 군사, 상업,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러시아 재무부가 조선정부에게 차관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РГВИА. Ф.400.Оп.1.Д.102.Лл10 с 06). 하지만 일본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전신선 개통은 불가능하였다. 이후 1901년 9월 러시아공사 빠블로프(А.И. Павлов)는 조선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조선과 러시아의 전신선 개통을 또다시 요청하였다. 빠블로프는 전신선 개통이 필요한 함경북도의 지명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함경북도 단천 성물

결국 뿌짜따는 1896년 체결된 서울의정서(베베르-고무라협정)³⁸⁾에 근거하여 400명이라는 대규모의 러시아군사교관을 조선에 파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군사교관 파견에 대한 합법성을 주장한 뿌짜따는 러시아 군사교관을 통해서 조선에서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러시아의 영향력을 조선에서 강화하려고 노력하였다.

1896년 11월 뿌짜따는 육군참모총장인 아부르쵸프(Н.Н. обурчев)에게 조선군대 양성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전보로 보고하였다. 그는 군단을 양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6,000명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Сюнь-Чжинъ-по) 명천 중성으로부터 러시아의 경계인 두만 강변 경흥(Кюнь-Хьш)까지 이다(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研究會編, 『俄案(2)』, 『舊韓國外交文書(17)』[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69], 380쪽).

38) 1896년 5월 14일 베베르와 고무라가 체결한 서울의정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주재 러시아와 일본 대표는 양국 정부의 동일한 훈령에 따라 회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1) 국왕의 환궁문제는 전적으로 그 자신의 자유재량과 판단에 맡기고 러시아와 일본 대표는 대궐에서 그의 안전에 관해 아무 의심이 없다고 생각될 때 환궁하도록 우호적인 권고를 한다. 일본대표는 일본인 장사들의 단속을 위해 가장 완벽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보장한다. 2) 현재의 내각대신들은 국왕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해 임명되었으며 그들 대부분은 지난 2년 동안 대신직 또는 기타 고위직을 지냈으며 너그럽고 진보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양국 대표는 항상 국왕에게 너그럽고 온건한 인물들을 대신으로 임명하여 그의 국민들에게 관용을 베풀 것을 권고하도록 노력한다. 3) 러시아대표는 다음 사항에 일본대표와 완전히 의견을 같이 한다. 조선의 현 사태 하에서 서울과 부산 사이 전신선 보호를 위해 어떤 곳에는 일본경비병 주둔이 필요할 것이며, 현재 3개 중대의 병력으로 구성된 이들 경비병은 가급적 조속히 철수하고 헌병으로 대체해야 하며 그 배치는 다음과 같음. 대구 50명, 강화 50명, 10개 중간지점에 각 10명씩. 이 부산 배치는 변경될 수 있으나 헌병의 총인원수는 2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후일 조선정부에 의해 평화와 질서가 회복되는 곳에서는 점차적으로 철수한다. 4) 조선인들에 의해 있을 수 있는 습격에 대비해 서울과 개항장의 일본인 거주지역의 보호를 위해 서울에 2개 중대, 부산과 원산에 각 1개 중대씩 일본군병력을 주둔시킬 수 있으나 각 중대는 2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병력은 거주지 근처에 숙영하며 그와 같은 습격의 우려가 없다고 생각될 때 그 병력은 즉시 철수한다. 러시아선교단과 영사관의 보호를 위해 러시아정부도 그 지역의 일본군 병력수를 초과하지 않는 군대를 보유할 수 있으며 내륙지방의 평온이 완전 회복되면 즉시 철수한다.”(국사편찬위원회, 『駐韓日本公使館記錄(8)』(서울, 時事文化社, 1995), 150쪽; АВПРИ. Ф.150. Оп.493. Д.192. Л.6-906)

위해서 29명의 장교, 131명의 하사관 등의 러시아군사교관을 파견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도 러시아군사교관이 조선군대를 지휘할 권리를 가져야한다고 주장하였다.³⁹⁾

1896년 12월 뿌짜파는 총체적인 조선군대 양성을 위한 자신의 구상을 보다 구체화시켰다.

“1) 조선의 내부적 질서 유지를 위해서 6,000명으로 구성된 군대가 양성되어야 한다. 양성된 조선군대는 향후 조선의 포병 및 공병 부대의 설치에 참가한다(1항).⁴⁰⁾ 2) 조선정부는 6,000명의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러시아군사교관을 초청한다(2항). 3) 러시아군사고문관은 조선의 군대 개혁 및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한다(3항). 4) 러시아군사고문관은 5년을 기한으로 초청된다. 추가적으로 조선정부와 러시아군사고문관과의 합의에 따라서 군사고문관의 초청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4항). 5) 러시아군사교관은 6,000명의 조선군대를 지휘하고, 조선군대의 경제 업무도 주관한다. 러시아군사교관은 조선의 장교 육성을 위해서 2~3년 과정의 군사학교를 설치하고, 하사관 육성을 위해서 2년 과정의 군사학교를 설치한다(5항).⁴¹⁾ 6) 러시아군사교관은 조선군대에 병기, 포병, 병원 등에 대한 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6항). 7) 조선 군부는 러시아군사고문관의 조언에 따라서 유럽식으로 조선군대를 조직한다(7항). 8) 조선정부는 국내방어를 위해서 포병, 공병, 해군 업무에 정통한 러시아군사교관을 초빙한다(8항). 9) 조선정부는 러시아군대의 법규를 조선군대에 도입한다. 러시아군사교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선인 통역을 충분히 고용한다(9항). 10) 조선정부는 조선군대를 양성 위해서 매년 수입의 1/4를 지출해야 한다. 러시아군사고문관은 조선군대의 예산편성에 참가한다. 러시아군사고문관은 조선군대의 예산지출을 감독한다(10항). 11) 조선정부는 조선에서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의 군사교관 파견을 금지시킨다(11항).”⁴²⁾

39) РГВИА. Ф.448.Оп.1.Д.9.Л.43.

40) РГВИА. Ф.448.Оп.1.Д.9.Л.148.

41) РГВИА. Ф.448.Оп.1.Д.9.Л.148об.

또한 뿌짜따는 조선에 파견할 러시아군사교관의 처우에 대한 러시아정부의 요구안을 직접 작성하여 러시아군사교관의 조선파견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까지도 주도하였다.⁴³⁾

위의 계획서를 살펴보면 뿌짜따는 러시아군사교관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고종의 신변안전을 위한 군대양성이 아니라 조선의 국내방어를 위한 군대양성으로 설정하였다. 그는 육군, 포병, 공병, 해군 등의 조선군대를 양성하려고 계획하였다. 이러한 조선군대의 양성을 위해서 뿌짜따는 다른 열강을 배제하고 러시아의 주도하에 조선군대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뿌짜따는 러시아군사고문관이 조선군대의 예산까지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군사고문관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였다. 뿌짜따의 조선군대 양성계획은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조선정부의 군대개혁을 위해서 조선정부에게 유용한 것이었다. 하지만 러시아군사교관이 6,000명의 조선군대를 지휘하고, 러시아군사고문관이 조선군대 예산의 편성에 참가하고, 러시아군사고문관이 조선군대 예산의 지출을 감독한다는 조항 등은 불가피하게 뿌짜따와 조선군부와의 마찰을 예고하였다.

이후 뿌짜따는 1897년 11월 조선군대의 규모, 러시아군사고문관과 군사교관의 역할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그는 “조선군대의 규모에 대해서 6,000명이 적절하고, 만약 조선의 경제상태가 열악하다면 조선정부가 6,000명을 목표로 점차적으로 군대를 양성해야 한다”고 러시아군부에 자신의 주장을 또다시 반복하였다.⁴⁴⁾ 여기서 그는 “이렇게 양성된 조선군대가 군사적으로 러시아에게 위협을 줄 수도 있다”라는 러시아군부 내부의 염려를 불식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즉 “이러한 위협은 오히려 다른 열강의 군사교관이 조선군대를 양성하거나 조선이 러시아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때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42) РГВИА. Ф.448.Оп.1.Д.9.Л.149.

43) РГВИА. Ф.448.Оп.1.Д.9.Л.157 с 06.

44) РГВИА. Ф.448.Оп.1.Д.9.Л.358.

뿌짜따는 “러시아군사교관이 조선의 군대개혁에 대해서 고종에게 직접적으로 조언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그는 “러시아군사교관이 조선의 군부대신과 함께 조선군대의 경제업무를 관장하고, 군대예산을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군사교관이 러시아군사교관의 계약연장에 대해서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그는 “러시아군사교관이 조선의 해안방어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 문제가 러시아의 향후 군사전략 수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향후 러시아가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조선항구를 조차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⁴⁵⁾

결국 뿌짜따는 “러시아군사교관이 조선의 내부적 질서 안정을 위해서 조선의 군대양성을 실행해야 하며, 이러한 조선의 군대양성과 병행해서 조선 정부도 군대법령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렇지만 뿌짜따는 “러시아군사교관이 조선의 내부적 질서 안정만을 위해서 활동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조선과 러시아의 긴밀한 관계를 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⁶⁾ 이렇듯 뿌짜따는 근대적 조선군대의 양성을 위해서 조선군대 개혁에 대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다. 뿌짜따는 러시아군사교관의 조선파견을 통해서 조선군대의 개혁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조선과 러시아의 긴밀한 우호관계를 형성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4. 조선에서의 활동 및 조선군부와의 관계

1896년 8월 군부대신 반놉스끼(П.С. Ванновский)는 뿌짜따를 조선주재 군사교관 단장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뿌짜따가 육군참모본부 아시아국에

45) РГВИА. Ф.448.Оп.1.Д.9.Л.358об.

46) РГВИА. Ф.448.Оп.1.Д.9.Л.195 с об.

서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청국 군사요원을 5년간 역임하고, 조선해안을 방 문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였다. 반놉스끼는 그의 임무에 대 해서 “1) 조선의 재정상태와 방어를 위한 수비 병력을 고려하여 조선군대를 양성할 것, 2) 서울과 노보끼예스끄(Новокиевск) 사이의 전신선을 신속히 건설하고 전신선을 방어할 방법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반놉스끼 는 “뿌짜따가 일본과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하고, 보다 세부적인 뿌짜따의 행동지침에 대해서는 외무부를 통해서 지시를 받을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반놉스끼는 뿌짜따의 성공적인 임무 완성을 위해서 “연혹통강 군사관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명령하였다. 즉 고종의 궁궐 수비대 건설 및 전신선 건설을 위해서 연혹통강 군사관구에서 하사관 과 일반병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⁴⁷⁾

러시아군사교관 단장 뿌짜따를 포함한 러시아군사교관은 1896년 10월 20 일에 포함 ‘그레미쉬이(Гремящий)’를 타고 제물포에 도착하였다. 육군중위 아파나시예프(Афанасьев), 소위 식스텔(Сикстель), 의사인 치르빈스끼(Черв инский) 1명과 10명의 하사 등을 포함한 1차 러시아군사교관은 10월 21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10월 22일 고종을 알현한 자리에서 뿌짜따는 “러시아정부가 조선의 군사 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자신을 군사교관 단장으로 임명하였다”고 밝혔 다. 그는 고종에게 “필수적인 조선군대 개혁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조선의 군부 또는 다른 부서에 소속한 권위 있는 인물에게 위원회의 구성 을 명령할 것”을 요청하였다.⁴⁸⁾

뿌짜따는 조선군대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친위대 양성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였다. 먼저 그는 “조선군대의 음식, 의복, 근무상황 등을 파악할 것” 을 러시아군사교관에게 지시하였다. 그는 “조선군인 중 800명으로 구성된

47) РГВИА. Ф.409.Оп.1.Д.9.Л.13 с об.

48) РГВИА. Ф.448.Оп.1.Д.9.Л.21-28; Пак Б.Д. Россия и Корея[러시아와 조선]. М. 1979. С.134.

친위대가 러시아 군대의 전형에 따라서 훈련받아야 한다”고 조선정부에 요구하였다.⁴⁹⁾ 친위대가 4개월의 훈련기간을 필요로 하고, 훈련과정 중 2개월부터 궁궐 수비에 대한 위병 훈련을 받도록 계획하였다.⁵⁰⁾

그의 계획에 따라 러시아군사교관은 러시아 하사관 1명당 친위대 중 80명으로 구성된 소대를 지휘하였다. 친위대의 훈련과정에서 군부대신인 민영환은 하루에 한번의 훈련을 주장했지만, 뿌짜따는 하루에 두 번의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서 관철시켰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친 후에 1896년 11월 13일부터 러시아군사교관은 본격적으로 친위대의 훈련을 실행하였다.⁵¹⁾ 초기 훈련에서 어려운 문제가 언어전달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뿌짜따는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통역을 고용하면서 비로소 러시아식 군사훈련을 체계적으로 전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⁵²⁾

1897년 2월에는 러시아군사교관이 5개 중대로 구성된 총 1,000명의 친위대를 양성할 수 있었다. 또한 5개 중대로 구성된 친위대는 수비 훈련에서 사격 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을 만큼 기본적인 훈련과정을 수행하였다. 뿌짜따는 “러시아군사교관이 1,000명의 친위대를 전체적으로 지휘했지만, 러시아식 군사훈련을 배울 수 있었던 조선 장교가 부분적으로 친위대를 지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⁵³⁾

아관파천 이후 조선주재 일본공사관은 고종의 환궁을 위해서 정부관료

49) Афанасьев 1 и Н. Грузинский . Русский инструкторы в Корее в 1896 г.-1898 г. (1896-1898년 사이 조선에서 러시아군사교관). Военный сборник(군사선집). 1898. N11. СПб. С.34.

50) РГВИА. Ф.846.Оп.2.Д.96.Л.153.

51) Афанасьев 1 и Н. Грузинский . Русский инструкторы в Корее в 1896 г.-1898 г. (1896-1898년 사이 조선에서 러시아군사교관). Военный сборник(군사선집). 1898. N11. СПб. СС.35-36.

52) РГВИА. Ф.448.Оп.1.Д.9.Л.195. 러시아군사교관에 의한 조선군 훈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심헌용, 『자료발굴: ‘주한 러시아 군사교관단’ 활동보고서 해제』, 『군사』, 48호, 2003, 352-387쪽).

53) РГВИА. Ф.448.Оп.1.Д.9.Л.123.

및 유생들과 적극적인 접촉을 시도하면서 환궁을 위한 각종 여론을 조작하였다. 또한 조선정부의 고위관료 중 대다수도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에 장기간 체류하자 고종의 환궁을 지지하였다.⁵⁴⁾ 1897년 2월 18일 의정부 대신들은 뿌짜파에게 환궁 이후 고종의 신변안전에 대한 책임여부를 타진했다. 이에 대해 뿌짜파는 공식적으로 “러시아군사교관에 의해 훈련된 친위대만이 고종의 신변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⁵⁵⁾ 환궁을 결심한 고종은 뿌짜파에게 그동안 자신의 신변안전과 친위대 양성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지속적인 신변보호를 부탁하였다.⁵⁶⁾ 이러한 상황에서 뿌짜파를 비롯한 러시아군사교관은 경운궁 내부에서 고종의 경호를 지속할 것을 결정하였고, 고종의 환궁 이후 친위대를 조직적으로 관리하였다. 이후 1897년 4월 뿌짜파는 사열식을 위해서 신병훈련을 직접 감독하였다. 위병활동을 충분히 수행한 친위대는 4~5월 사이에 사격 훈련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⁵⁷⁾

54) 기존연구는 일본이 환궁을 그들의 정치력을 다시금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원하였고, 그에 따라 환궁에 유생들을 통한 여론 조작에 앞장섰으며, 독립협회 등도 우국적인 동기에 의하여 환궁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가 고종의 신변안전을 환궁 이후에도 이미 양성된 궁궐 수비대에 의해 보장해 준다는 약속을 하였고, 궁궐에서 국왕을 호위할 수 있는 한 러시아공사관에 고종을 계속 체류시킬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권희영, 『한국과 러시아: 관계와 변화』[서울, 국학자료원, 1999], 321쪽; 심현용,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관계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229쪽). 특히 일본공사관은 정부관료 등을 매수하기 위해서 자금을 투여하는 등 고종의 환궁을 위해서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하였다. 즉 일본공사관은 대원군을 통해서 정부의 원로대신인 김병시, 조병세, 정범조 등과 접촉을 시도하였고, 정부관료를 역임한 민영준, 안경수, 김종한, 김가진 등을 동원하였고, 전국 유생들의 환궁 활동을 지원하였다(國史編纂委員會編, 『駐韓日本公使館記錄(13)』[서울, 時事文化社, 1995], 265-266쪽).

55) РГВИА. Ф.448.Оп.1.Д.10.ЛЛ63-66; Пак Б.Д. Россия и Корея[러시아와 조선]. М. 1979. С.139. 이미 1896년 12월 고종은 러시아군사교관에게 환궁 이후에도 자신의 신변을 보장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당시 뿌짜파는 러시아군사교관이 고종의 신변안전을 위해서 데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РГВИА. Ф.448.Оп.1.Д.9.Л50).

56) РГВИА. Ф.448.Оп.1.Д.10.Л37; The National Archives. FM 134. Roll 13. No 258. PP.1-4

57) Афанасьев 1 и Н. Грудзинский . Русский инструкторы в Корее в 1896 г.-1898 г.

1897년 3월 뿌짜따는 친위대와 시위대⁵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1) 궁궐 수비를 위해 조직된 시위대는 러시아군사교관에 의해서 훈련받은 친위대만으로 구성한다. 2) 중위 이파나시예프는 친위대의 교육을 총괄한다. 중위 꾸지민은 친위대의 재정과 식량 분야를 주관하고, 소위 식스멜은 친위대의 행정 분야를 담당한다. 3) 꾸지민은 러시아군사교관이 친위대 지원을 위한 후방업무를 통제할 수 있을 때 경제업무에 대한 러시아어 지침을 한글로 번역한다.”⁵⁹⁾

이렇듯 친위대를 훈련시킨 뿌짜따는 당시 조선군대의 상황에 기초하여 군대양성을 추진할 수 있었다. 아관파천 직후 조선군부는 중앙군대로 친위 2개 대대를 신설하여 친위 5개 대대를 설치하였고, 친위 1~3대대를 1연대로 편성시켰다.⁶⁰⁾ 또한 조선군부는 중앙 군대인 工兵과 輜重兵를 폐지시켰고, 馬兵 중 1중대(200명)를 親衛騎兵隊로 편성하였고, 마병 중 100명을 輜重馬兵으로 재편시켰다.⁶¹⁾ 지방군대는 1895년 평양과 전주에 설치된

(1896-1898년 사이 조선에서 러시아군사교관). Военный сборник(군사선집). 1898. N11. СПб. СС.39-40.

58) 아관파천 이후 친위대가 궁궐수비 및 수도경비를 모두 책임졌다. 그런데 1897년 3월 16일 시위대가 창설되면서 시위대가 궁궐수비, 친위대가 수도경비를 각각 담당하였다(『韓末近代法令資料集(II)』, 建陽 2年 3월 16일 詔勅「侍衛隊編制 豫算을 軍部 度支部로 하여금 磨鍊케 하는 件」, 216쪽; 『韓末近代法令資料集(II)』, 建陽 2年 4월 4일 勅令15號「親衛隊編制에 관한 件」, 225-226쪽).

59) 國史編纂委員會編, 『駐韓日本公使館記錄(12)』(서울, 時事文化社, 1995), 4쪽; Афанасьев 1 и Н. Грудзинский. Русский инструкторы в Корее в 1896 г.-1898 г.(1896-1898년 사이 조선에서 러시아군사교관). Военный сборник(군사선집). 1898. N11. СПб. С.41.

60) 『韓末近代法令資料集(II)』, 建陽 元年 3월 4일 勅令15號「親衛隊 2大隊 增設에 관한 件」, 50쪽; 『議奏(5)』, 建陽 元年 4월 19일, 56冊(奎 17705), 120쪽. 군부는 1896년 6월부터 부족한 병력을 모집하였고, 9월 친위 3, 4, 5대대는 훈련을 받고 있었다(『독립신문』 1896.6.18 「잡보」, 1896.9.22 「잡보」).

61) 『韓末近代法令資料集(II)』, 建陽 元年 4월 19일 勅令18號「工兵輜重兵 廢止에 관한 件」,

鎭衛隊가 각각 2대대로 유지되었고, 그밖에 各 地方隊는 여러 차례 개편되어 6개 지역에 각각 1대대로 편성되었다.⁶²⁾ 러시아군사교관이 파견되기 이전에 친위대 4,000여명, 진위대 800여명, 각 지방대 1,800여명 등으로 조선군대가 구성되었다. 이 중 친위대와 진위대는 러시아 소총 등으로 무장하였다.⁶³⁾

이미 조선군부는 아관파천 직후인 1896년 2월 러시아 해군대위 흐멜레프(Хмелев)를 통해서 33명의 무관학교 학생을 교육시켰고,⁶⁴⁾ 1896년 5월 러시아정부로부터 3,000정의 러시아 소총 및 탄약을 도입하였고,⁶⁵⁾ 1896년 8월 병기 제조를 위해 러시아 기계사관 레미노프(Б. Реминов)를 機械廠에 고용하였다.⁶⁶⁾ 이러한 상황에서 고종은 뿌자파에게 대규모의 조선 군대양성

75쪽; 『韓末近代法令資料集(II)』, 建陽 元年 6월 8일 勅令24號 「馬兵隊를 廢止하고 친위 기병대를 設置하는 件」, 86쪽; 『韓末近代法令資料集(II)』, 建陽 元年 6월 8일 勅令25號 「輜重馬兵을 설치하는 件」, 87쪽.

62) 『議奏(3)』, 開國504년 9월 13일 「陸軍編制綱領 勅令案」, 31冊(奎 17705), 156쪽; 『韓末近代法令資料集(II)』, 建陽 元年 5월 30일 勅令23號 「各地方舊額兵措處에 관한 件」, 83쪽; 『韓末近代法令資料集(II)』, 建陽 元年 8월 5일 勅令41號 「各地方舊額兵編制 改正」, 128쪽; 『韓末近代法令資料集(II)』, 建陽 元年 8월 26일 勅令59號 「忠州, 洪州, 尙州, 原州郡에 地方隊를 設置하는 件」, 157쪽; 『韓末近代法令資料集(II)』, 建陽 元年 9월 24일 勅令63號 「公州, 春川, 江界, 忠州, 洪州, 尙州, 原州地方隊를 廢止하는 件」, 178쪽.

63) 비숍은 중앙 군대가 장교 포함 4천 3백여명이고, 러시아에서 3천여정의 소총을 수입하였다고 밝혔다(Bishop I. B. 저, 이인화 역, 『한국과 그 이웃나라』[서울, 살림, 1994], 494- 495쪽). 전주를 방문한 뫼텔은 전주진위대가 총 400명으로 구성되었고, 모두 유럽식 무기를 소지했다고 밝혔다(『뫼텔주교일기』 1896년 12월 1일).

64) Афанасьев I и Н. Грудзинский . Русский инструкторы в Корее в 1896 г.-1898 г. (1896-1898년 사이 조선에서 러시아군사교관). Военный сборник(군사선집). 1898. N11. СПб. С.34.

65) АВПРИ. Ф.191. Оп.768. Д.68. Л.3; РГВИА. Ф.400. Оп.1. Д.2031. Л.30.

66) “機械廠內管掌 諸般機械兼 且看檢工藝之事”(『俄士官우렘노프約定書』[奎 23271]). 이후 군부는 레미노프와 계약을 3년 연장하였다(『奏本(1)』, 建陽 2년 3월 4일 「機械廠에 俄國士官 우렘노프 雇用續約하는 請議」, 6冊(奎 17703), 257쪽). 1883년 소규모나마 무기를 제조하기 위해서 관리관청으로 機器局, 공장으로 機器廠이 설치되었다(李光麟, 『韓國開化史研究』[서울, 一潮閣, 1969], 169쪽).

을 요청하였다. 조선군부도 조선의 재정상태와 군대인원을 고려하여 6,000명의 근대적인 조선군대를 양성하려고 계획하였고, 뿌짜따 대령과 긴밀히 상의하여 조선군대양성계획을 완성하였다. 조선군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조선군대의 현황을 파악한 뿌짜따는 자신의 조선군대 양성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⁶⁷⁾

고종의 환궁 이후 군부대신 심상훈은 1897년 4월 조선 군대양성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러시아군사교관 160명을 고용하려는 “俄國教練師와 工匠醫樂諸員 隨時雇用件”을 ‘신의정부’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선 정부 관료는 군부대신의 原案을 반대하였다.⁶⁸⁾ 그 이유는 일본과 미국의 후원을 받고 있는 조선 정부 관료들이 조선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를 극도로 경계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공사관은 러시아군사교관의 조선 파견을 막기 위해서 각종 방해 공작을 펼쳤다.⁶⁹⁾ 이러한 반대에 직면한 고종은 군부가 조처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후 러시아군사교관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

67) РГВИА. Ф.448.Оп.1.Д.9.ЛЛ.148-149; 國史編纂委員會編, 『駐韓日本公使館記錄(11)』(서울, 時事文化社, 1995), 255쪽. 1897년 4월 조선을 방문한 러시아 육군중장 운페르베르게르 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계획은 6,000여명의 군대를 육성하려는 조선정부의 희망에 따른 것이다. 6,000여명 인원은 재정적 측면에서 근거하였고, 현재 조선군대의 인원수에도 합치하는 것이다. 러시아군사교관에 의해서 훈련받았던 친위대가 경운궁을 수비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종이 경운궁으로 환궁할 때 이 계획은 완성되었다.”(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역사문서보관소, 이하: РГИА]. Ф.560.Оп.28.Д.24.Л.73).

68) 『奏本(1)』, 建陽 2년 4월 30일 「俄國教練師와 工匠醫樂諸員 隨時雇用件」, 6冊(奎 17703), 242쪽. 일본공사 가토우(加藤增雄)에 따르면 1898년 4월 21일 군부대신 심상훈은 협판 민영기를 비롯한 주사 3인과 함께 군사교관 초빙에 관한 계획안을 작성하였다(國史編纂委員會編, 『駐韓日本公使館記錄(13)』[서울, 時事文化社, 1995], 267쪽). ‘신의정부’의 성립과정 및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김영수, 俄館播遷期 정치세력 연구, 성균관대학교 史學科碩士論文, 1999, 50-56쪽).

69) 國史編纂委員會編, 『駐韓日本公使館記錄(11)』(서울, 時事文化社, 1995), 255, 274쪽. 이 완용은 3~6명의 러시아 장교를 통해 조선의 사관과 하사를 교육시키고, 훈련을 받은 사관과 하사가 병졸을 직접 훈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奏本(1)』, 建陽 2년 4월 30일 「俄國教練師와 工匠醫樂諸員 隨時雇用件 審査報告書」, 6冊(奎 17703), 244쪽).

다.⁷⁰⁾ 이후 조선군부는 1897년 5월 장교 3명, 하사관 10명, 무관학교 교사 1명 등 총 14명의 러시아군사교관을 조선에 파견할 것을 러시아정부에게 요청하였다.⁷¹⁾

1897년 초반 러시아정부도 뿌짜따의 조선군대 양성계획서에 대해서 본격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1897년 2월 외무대신 무라비요프(М.Н. Муравьев)는 뿌짜따의 계획서에 대해서 군부대신인 반놉스끼에게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1) 재정적으로 취약한 조선정부가 6,000명의 조선군대를 양성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2) 1896년 일본과 러시아가 체결한 모스크바의정서(라마노프-아마가타 의정서) 때문에 러시아만 군사교관을 파견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외무대신 무라비요프는 “조선정부가 3,000명의 조선군대를 양성할 수 있다”고 밝혀서 뿌짜따의 계획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다.⁷²⁾ 이후 러시아군부는 14명의 2차 러시아군사교관 파견을 요청한 조선정부의 문서를 검토하면서 연흥통감 총독 두홉스끼(С.М. Духовский)와 군사교관 파견에 대한 막바지 의견 조율을 진행하였다. 결국 육군참모총장 아브루초르(Н.Н. Обручев)는 1897년 6월 연흥통감 군사관구 소속 장교 3명, 하사관 10명 등을 조선에 파견할 것을 연흥통감 총독에게 지시하였다.⁷³⁾ 이러한 러시아정부의 2차 군사교관 파견 인원은 조선정부가 요청한 파견인원과 거의 동일한 규모였다.

1897년 4월 뿌짜따는 조선정부가 러시아군사교관 초빙 및 조선군대 양성계획을 변경하였다고 군부대신 반놉스끼에게 보고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논

70) 『奏本(1)』, 建陽 2년 4월 30일 「俄國教鍊師와 工匠醫樂諸員 隨時雇用件」, 6冊(奎 17703), 242쪽; РГИА, Ф.560.Оп.28.Д.24.Л.74.

71) 그밖에 조선군부는 軍器廠 機官 1명, 樂師(악장) 1명, 악사 3명, 의사보조 2명 등의 조신파견을 요청하였다(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研究所編, 『俄案(1)』, 『舊韓國外交文書(17)』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1969], 424-425쪽).

72) РГВИА, Ф.448.Оп.1.Д.9.Л.137 с 06.

73) РГВИА, Ф.448.Оп.1.Д.9.Л.Л.281о6-282, 294.

의하기 위해서 자신이 귀국할 필요가 있다며 뿌짜따는 본인의 귀국 문제를 반놉스끼에게 상의하였다.⁷⁴⁾ 그 후 1차 러시아군사교관을 통해서 조선군대를 양성한 뿌짜따는 1897년 8월 서울을 떠나 러시아로 향했다.⁷⁵⁾

5. 맺음말

뿌짜따는 기본적으로 극동에서 평화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선의 독립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조선이 극동지역에서 러시아 국경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고, 또한 조선이 일본의 만주진출을 막기 위한 장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파악하였다. 뿌짜따는 러시아가 조선에 군사교관을 파견한다면 조선이 내부적으로 안정을 이룰 수 있고, 조선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그는 열강의 군사적 조선 진출을 방어하기 위해서 조선의 군대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생각을 실행하기 위해서 뿌짜따는 러시아군부 내에서 러시아군사교관의 조선파견, 조선의 군대양성 등을 주도하였다.

청일전쟁 이후 뿌짜따는 극동 및 조선에 대해서 러시아의 군사적 전략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그 이유는 그가 청국주재 군사요원을 역임하면서 극동지역에 대한 각종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육군참모본부 아시아국에 근무하면서 대령 뿌짜따는 극동지역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부 내에서 극동 전략을 입안할 수 있었고, 자신의 견해를 관철시킬 수 있었다.

74) РГВИА. Ф.448.Оп.1.Д.9.Л.123.

75) 『독립신문』 1897.8.19 「잡보」. 조선정부는 1897년 6월 뿌짜따에게 조선군대 양성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하사하였다. “포공국에서 군부 훈령을 드대여 성성전 별 갑 주 한 벌을 제구 아올너 아라사 사관 부자다의게 내여 주고 만 모슬 총 검초 이십 오개는 시위 대 병정을 주어 차게 하였더라.”(『독립신문』 1897.6.1 「잡보」)

그 결과 첫째, 1895년에는 러시아군사요원이 청국과 일본에 각각 파견되었다. 1896년에는 러시아군사요원이 조선에 파견되었고, 만주 등 청국 소재 러시아 영사관에도 러시아군사요원이 파견되었다. 둘째, 1896년 뿌짜따의 주도하에 러시아군사교관이 조선에 파견되었고, 친위대 및 조선군대 등을 본격적으로 양성할 수 있었다. 뿌짜따는 조선군대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러시아군부에게 제기하였고, 조선군대 양성에 대한 러시아군부의 지지를 이끌 수 있었다. 셋째, 극동에 대한 군사 및 지리 조사에 대한 뿌짜따의 계획도 실행되었다. 즉 스트렐리비쯔끼(И.И. Стрельбицкий) 중령, 꼬르프(Корф) 중령 등 러시아 장교를 통해서 조선과 만주에 대한 치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렇듯 뿌짜따의 조선 및 극동에 대한 견해가 러시아군부를 통해서 현실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 조사 등을 통해서 조선과 만주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던 러시아군부는 극동지역에서 정규부대 및 첩보부대를 강화시키면서 1900년 의화단 사건을 계기로 만주를 군사적으로 점령할 수 있었다.

뿌짜따가 조선군부에 미친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그는 조선군대의 경제업무에 대한 부패를 일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래서 러시아군사교관은 조선군부의 경제 개혁을 통해서 조선병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고 시도하였다. 둘째, 러시아군사교관에 의해서 훈련받은 조선 장교와 병사 중 일부는 러일전쟁 시기 일본에 대항하여 러시아군대를 지원하였고, 을사조약 이후 항일 독립군대를 조직하여 일본군대에 저항할 수 있었다. 이렇듯 뿌짜따는 러시아군부 내에서 러시아군사교관의 파견을 주도하면서 조선군대의 근대화에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뿌짜따의 조선군대 양성 계획은 어디까지나 조선군부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서 이뤄진 것이다. 고종의 승인 하에 조선군부는 조선의 재정상태와 군대인원을 고려하여 근대적인 조선군대를 양성할 것을 뿌짜따에게 요청하였다. 또한 러시아군사교관의 파견인원도 조선과 러시아정부의 협의 하에 결정되었다. 결국 조선과 러시아는 근대적인 조선군대 양성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면서 추진하였다.⁷⁶⁾

(원고투고일 : 2006. 9. 27, 심사완료일 : 2006. 11. 16)

주제어 : 조선군대, 대령 뿌짜파, 친위대, 러시아군사교관, 고종

76) 뿌짜파는 조선에 파견된 러시아군사교관의 활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친위대가 러시아군사교관에 의해서 궁궐 수비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군사훈련도 모두 수행하였다. 그리고 러시아군사교관은 조선군대의 양성뿐만 아니라 조선군대의 경제업무까지 개혁시킬 수 있었다.” 결국 뿌짜파는 “러시아군사교관이 조선에 파견되어서 조선군대를 양성했던 것이 러시아의 국익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조선에서 군사교관의 활동을 통해서 러시아가 조선에서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고, 극동에서 군사와 정치적 영향력의 강화를 촉진시켰다”고 인식하였다(АВПРИ, Ф.150.Оп.493.Д8.Л.332 с 06; РГВИА, Ф.448.Оп.1.Д9.Л.353).

<ABSTRACT>

Col. Potiata's, Russian Officer in charge of the
Korean troops, Policy for the Korean and the Far East

Kim, Young-soo

The study of Col. Potiata's, the Russian Officer in charge of the Korean troops, Policy for the Korean and the Far East shows that Russian's policy in Korea was preservation of independence, territorial inviolability and integrity of Korean state.

Gojong's flight to Russian legation and his more than a year's was not the manifestation of Russia's aggressive towards Korea. On the contrary, Russia did not avail herself the extremely opportune situation for annexation of Korea establishing of the protectorate over her.

Gojong had moved from the Russian legation to his Palace and guarded by his troops officered by Russians. Col. Potiata's, the Russian Officer in charge of the Korean troops, did give the *Gojong's* assurance that he could protect him, and that he did this without first consulting Mr. Waeber.

Potiata' was executed that the arrival in Korea of fourteen Russian Officers for the purpose of drilling the Korean troops, and it was intimated that "many more Russian Officers" was expected to arrive for the same purpose.

Key Words : Korean troops, Col. Potiata, Russian's policy, Russian Officer,
Gojong